

## 돌쳐서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므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흑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들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육백 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결 해변 그 장막 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역, 출애굽기 14:1~14]

# 출

애굽기 14장 14절은 외워 들만 합니다. 워낙 간단하고, 분명해서 외우기가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가훈으로 새겨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어떤 환경에서 주어졌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형편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 생각도 안 하고 덮어놓고 이 구절만 외우면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집안 살림 다 떨어먹기 쉬운 구절이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쯤 전에 이것이 미리 예고 되었을까요?

야곱이 자식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때에.

예, 야곱이 자식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이 반드시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 애굽에 가매장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너희의 후손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출애굽할 때 메고 나갑니다. 정식 매장을 할 때까지 몇 년을 메고 다녔을까요? 해골을?

광야 길을 다 메고 다녔으니까 근 40년을 메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다녔다는 묘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출애굽이 나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요셉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이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야곱이 알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이런 이런 일을 겪고 난 후에 4대 만에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우연하게 생겨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바로는 최대한으로 버티어 본 것이지요.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버티고 저항을 하면 할수록 피해는 컸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는 벌까지 받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쫓겨나다시피 애굽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

하심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14장을 자세히 보시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돌쳐서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찾아 본 사전에는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면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돌이켜서라는 뜻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혹은 돌아서서 바다와 므딕 사이의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좋은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우회하도록 하셨습니다.

우회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방향을 틀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유컨대 애굽을 포항으로 치고 가나안 땅을 경주 쪽이라고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을 따라 경주쪽으로 똑바로 나가면 아주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 가지 말고 저 오천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대군이 그리로 움직여 갔습니다. 방향이 약간 이상하지만 돌아서 가긴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또 틀어서 그리 가지 말고 송도 바닷가(포항)로 가서 거기서 진을 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합니다만 굉장히 이상한 명령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면 3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아득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의미를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잘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지 없이 방황하다가 드디어 광야에 갇혀 버렸다고 바로가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된 말들 중에서 돌쳐서라는 말이나 그 다음 ‘그 땅에서 아득하여’란 말이 이해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썩 그렇게 잘된 번역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단어만 현대 어법에 맞게 고쳐놓은 개역 성경 개정판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참고하실 분은 그런 성경을 참고 해도 좋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왜 이렇게 말이 좀 현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또 어렵게 번역이 되었나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이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화 되고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되게 한 일등 공신은 성경책입니다. 적어도 몇 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글을 열심히 배운 이유가 성경을 읽기 위함이었습니 다. 한글을 배울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웠고 성경 때문에 한글이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글 보급의 일등공신은 성경입니다.

한국의 표준말을 정할 때에 성경공회와 협력하지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성경이 이렇게나마 번역이 되었을 때에는 성경이 가장 앞서나가는 책이었죠. 여기에 맞추어서 한국말들이 다 따라왔어야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성경은 원본 그대로 있고 우리말은 다소 달라지면서 시대에 뒤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라도 번역이 되면서 우리 한글을 보급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프랑스를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죠? 불란서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들으면 우리 아빠 참 무식하다 프랑스를 왜 불란서라고 그래? 애들이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식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불렀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델란드를 뭐라고 불렀죠? 화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좀 구식이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덴마크를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덴마크를 ‘정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거꾸로 한번 맞춰보세요. 오지리는 어느 나라일까요?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니까 오스트리아겠는데요. 어른들이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서 “우리 아빠 참” 이런 얘기하는 아이가 잘못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번역

해서 쓰다가 지금은 원어와 가깝게 번역한다는 원칙에 따르느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혹시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 성경이 더 좋은 말과 아름다운 말로 번역이 되어야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한글에 끼친 공헌이 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됩니다. 옛말이라서 어려우시더라도 꼭 뜻은 알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해서 결국은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로의 궁에서는 신하들이나 참모들이 바로를 부추겨서 저 아까운 노예들을 다 보낼 수 없습니다. 도로 잡아옴시다. 옆에서 막 부추겨 대고,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 바보 같은 자식들, 가나안으로 갈려면 똑바로 갈 일이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저 바보 같은 것들을 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원통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 잡아오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냥 보내고 나니까 바로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저들이 나갈 때 무어라고 하느냐 하면 8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담대히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하고 난 밑에 보면(난하 주) 다시 설명을 해 놓았는데 높은 손으로 라는 표현이 있죠. 높은 손으로 나갔다? 말을 바꾸면 손을 높이 들고 나갑니다. 손을 왜 높이 들고 나가요? 팔 아프게?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서 나간 거죠. 그걸 뒤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바로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할 때, 병거를 인솔하는데 보면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는 표현이 7절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 장관들이라고 번역된 말이 그러면 문교부 장관도 나오고 농수산부 장관도 나와 가지고 병거를 인솔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여기에 장관이라고 번역된 말 역시도 군대 지휘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대 지휘관들을 총 동원해서 추격에 나섰더라는 얘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간다 해서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큰 감격에 벅차서 나갔는데 얼마 가다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11절부터 원망을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유명합니다. 일단 생기면 원망하고, 대들고 그랬었죠. 여기서부터 터져 나오는데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일이 좀 잘 돼간다 싶으면 좋아가지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감격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내가 뭐라고 하더냐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꼭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모세는 믿는 데가 있었을 겁니다. 모세의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로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 끝에 나온 말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모세 자신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생각밖에 전혀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할 때 "나도 모르겠다" 이 소리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 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기다려 보자" 그런 유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백성들 몰래 돌아서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양입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하는데 이게 아마 모세의 갈등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기는 분명히 하실텐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백성은 원망해 댁니다. 백성들이 원망한다고나마져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때로는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야 마음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설마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앞장 서서 가시다가 우리처럼 차마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은 때로는 어떤 일이 생겨날지 알 수도 없고 하

나눔을 믿고 나가다 보면 이런 답답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뛰어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방식대로 그냥 자버리면 됩니다.

여기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거든요. 본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사형통하고 편안한 길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죠?

아멘.

아멘은 아멘인데 좀 희미하네요. 별로 복을 못 받은 거 같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했는데 내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좌악 풀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 눈에 만사형통한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불평불만도 얼마든지 터져나올 수 있는 길이란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만사형통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만나서 만사형통했던 사람 있어요? 없습니까? 바뀌봅시다. 하나님 만나서 고생길로 들어갔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요?

요셉이요.

네, 요셉도 고생했죠. 또요.

바울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자신은 굉장히 기쁘다고 했는데 그 고생 말로 다 못합니다. 바울. 또 있어요? 누구요?

요요.

예. 요도 하나님 때문에 고생을 참,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야곱이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 데요. 아는 사람 아무나 부르면 거의 다 맞습니다. 내용도 모르는 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을 불러대면 거의 다 맞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초등부 선생님 중에 설교하면서 사람 잡는 어부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지요? 아브라함을 왜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오죽하면 마누라 뺏기고 자기 죽을까 싶어서 누이라고 속여 가면서 한번도 아니고 두번 씩이나... 가나안에서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모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자라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자기 부모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죽도록 고생했는데 죽을 때 다 돼서야 깨달은 바가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요?

지키시는 하나님.

조금 비켜갔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몰랐어요. 평생을 고생하다가 죽을 때가 다 돼서 돌아보니까 '아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그 험악한 세월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르고 계신 세월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고 정말 고통없이 잘 먹고 잘 살기를 희망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은 그렇게 만사형통한 길만은 아니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편안한 길보다 조금 힘든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따른다면 나 스스로 이 어려운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처녀가 시집 갈 때 제일 안 좋은 신랑의 조건이 뭐죠?

가난하고 장남.

혹시 집사님! 가난하고 장남 아니셨어요?

맞아요.

바로 그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제 선배 중에 안동 있는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서른 중반을 넘어갈 때까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인데도 결혼을 못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일찍 장로가 된 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분을 욕한 게 아니고 그 분이 있는 교회 처녀들을 보고 하는 거지요. 왜요? 만이인데 가난하고 동생들이 많다고 아무도 시집갈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가서 몇 년만 고생하면 저런 신랑감이 없는데 신앙, 신앙 해놓고 시집갈 때는 저것 봐라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적으로 부닥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편안함을 더 찾는 겁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나의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매사에 이런 식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힘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여겨질 때 어려움이 보인다 해도 그 길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 는 방법입니다. 잘 먹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 못할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밖에 매달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프면 하나님보다는 의사를 먼저 찾고, 병원을 먼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좋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찾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신앙적으로는 아주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선 그렇게 부유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 벌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벌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벌어야 합니다. 단 부자처럼 살지 말자는 뜻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왜 가난하게 살아요? 좋은 데 쓰면 되죠. 부자가 되긴 되어야 하지만 자신을 위한 부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은 부자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한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예전에 중학교 3학년짜리 하나가 시집을 안 간대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시집을 안 간다고 하면 웃고 넘길 일이지 그걸 붙들고 시집을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선생도 참 이상한 선생님입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는 아주 예리한 아이입니다. 특별히 눈 여겨 볼 만한 아이였는데 애가 안 간다고 할 때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어요. 조용할 때 불렀죠. 왜 안 갈 거냐니까 답은 간단해요. 시집가면 귀찮을 것 같대요. 그럼 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겠네. 편안하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구절절이 설명을 시작했는데 2시간만에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시집가겠다는 대답을 듣고 얘기를 마쳤거든요. 중학교 아이 얹혀 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2시간 이상 걸렸어요.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지요? 모두가 훈련을 나가는데 무슨 피병을 부러가지고 혼자 부대에 남아 덩굴덩굴 구르고 있으면 깨소금 맛입니다. 다들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을텐데 혼자 부대 안에서 덩굴고 놀면 맛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평생에 손해입니다. 죽을 고생하고 난 다음 목청이 터져라 군가 부르면서 돌아와서 그 동안 있었던 오만가지 고생담 털어놓고 떠들어 댈 때 이 친구 뭐합니까? 뭐해요? 그것이 결코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제대해 가지고요 “야! 내가 군대에서 어땠는지 아느냐?” 하고 열심히 뽕튀기를 합니다. 남들은 평생 이야깃 거리를 만들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평생 거짓말 거리를 만들고 있는 셈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

라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이란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은 바로가 볼 때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의 삶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야! 저 놈들 사는 것 보면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좀 듣고 사셔야 합니다. 나 보고 아무도 안 그러던데? 이상한 삶을 안 사니까 그렇죠. 앞서 갔던 위대한 선조들의 삶을 잠깐만 살펴 보십시오. 대부분 그랬습니다.

토마스 목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대로 전도 사역을 감당치도 못하고 대동강변에 왔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분이 태어난 고향이 포항 근처의 신광쯤 될까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당보다도 작아요. 영국이라는 그 큰 나라의 시골 조그마한 구석에 있던 젊은 청년이 그 당시 알려지지도 않은 미개한 나라, 땅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정상으로 봤겠습니까? 믿어도 좀 적당히 믿지 저 친구 완전히 미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살자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대로 산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나 교인이 관련된 일이 있으면 꼭 봉으로 여기고 덤비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고 한번 쳐 놓으면 완전히 봉 잡듯이 덤빉니다. 교통사고 내지 마십시오. 혹시 내셨거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 봉 잡으려고 덤빉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교통사고 내지 마세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머리 수그리고 사정하는 꼴을 저는 못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 우리가 바보짓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일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왜 저렇게 바보같고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말을 듣고 사셔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마십시오. 내가 본래 바보라서 바보 짓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려고 싶진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싶으면 그 어려운 길로도 좀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방향도 못 잡고 이리저리 가게 하다가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해 놓았는데 가야 할 곳은 저 바다 건너편입니다. 바로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이상하게 보이도록 해서 바로의 군대를 유혹하는 거죠. 그 군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왜 이렇게 대합니까? 애굽에 그 많은 재앙을 내리고도 하나님께서 또 바로의 군대를 불러들여서 완전히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4절 끝을 보십시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 끝에 보시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줄 알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고도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화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 바보 같은 놈들하고 욕을 해대고 그들을 따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 믿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와 봤자 그것은 그들의 비극으로 끝날 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요 험난한 길이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어리석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믿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뭐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 길입니다. 참 힘든 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길이 여기에 있는가 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이 길이 맞다 싶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쳐서 바닷가에 장막을 쳐야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이리저리 꾸불꾸불하게 돌다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거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갔을 때에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하실지 백성들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도 받고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왜 내가 이 길을 왔던가 싶은 생각이 들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싶을 때에는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놓고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들어가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병으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신세 타령도 하고, 내가 왜 이 길로 왔던가 아니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싶을 때 원망도... 정 안되겠거든 원망도 하십시오. 그러나 기대감 하나는 꼭 갖고 계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 주실 것이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상상도 안되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기대감 하나를 가지고 계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두렵게 했던 그 애굽의 군대가 나중에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고 그 건너편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감격과 그 노래는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감격의 노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성격이 고약한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참 불행한 처지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가능성도 없고 희망이 없다 싶을 때에도 내가 신앙대로 바르게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언젠가 영광스러운 때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안되겠거든 원망도 하고 짜증도 좀 부리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며 대들었다가 복 받은 선지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보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고 대들었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언젠가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격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라고 감사의 기쁨을 누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내가 제대로 인간이 되기는 됐겠습니까? 하고 고백할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은혜고 감사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건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집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이런 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그 힘든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런 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시편 81:10)라고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입만 벌려라 채우겠다 하는데 그 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입을 벌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벌리면 거기다 채우겠다는 얘기죠.

그 입을 벌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따라 힘들어 보여도 그 길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하고, 돌쳐서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이 일은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쳤는데 뒤에서 밀고 들어오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걸요. 목숨이 걸린 문젭니다. 이거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 하고 어느 게 어렵습니까? 설마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대답하시면 큰 일 나죠? 사랑하려니까 사랑할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하죠? 설마 그럴까요?

생각을 좀 바꿔 보시면 사랑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일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 생각하시고 남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요? 죽도록요? 그 죽도록 사랑하라 하는 것은 결혼식장에 가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 효력이 없습니다. 죽도록 사랑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언제했냐고 그러데요. 사랑 받는 본인이 받았다고 느낄 만큼 해야 됩니다. 나는 죽도록 했었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남자가 무슨 남자같이 놀아야 복종하든지 무얼하든지 하지. 쪼잔하기 이를 데 없는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때에 교회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하고 목숨 걸고 바닷가에 장막 치는 것하고 또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나은가?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남편에게 잔소리 아무리 갖다 퍼부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쳐 보십시오 고쳐지는가? 요즘은 잔소리로 고치려고 안 하고 공갈로 고치려고 하죠? 요즘 공갈치는 아내가 많다고 합니다. 서로 불행할 뿐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기란 정말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갔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일이 몹서리 나는 일이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을, 이웃, 심지어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라고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읍시다. 선교라는 것이 꼭 외국 가야 되고 물 건너 가야 합니까? 예,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멀리 가기 전에 내가 속해 있는 이 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교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 가십시오. 남이야 웃든지 말든지, 남이야 비웃든지 어찌든지 간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십시오. 거기에 흥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